

## 로사탄 대 포시노프릴의 고혈압 환자들에서 항고혈압 효과, 안전성 및 내약성의 비교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박대균, 이명묵, 채인호, 이무용, 김호수, 손대원, 오병희, 박영배, 최윤식

**연구배경:** 로사탄은 경구 복용의 선택적인 AT<sub>1</sub> angiotensin II receptor 차단제로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마른 기침이나 발현될 수 있는 혈관 부종과 같이 ACE 저해제와 관련된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.

**방법:** 공개, 무작위, 비교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1일 1회 로사탄(50mg)과 포시노프릴(10mg) 투여후 1~3기 고혈압 환자 96명에서 유효성, 안정성, 내약성을 평가하였다. 만약 6주째 측정된 trough좌위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치료기 종료시까지 각 약제를 2배 증량하였다.

**결과:** 치료 6주째 trough좌위 확장기 혈압의 평균 강하량은 로사탄(50mg) 치료군이 7.4mmHg(95% 신뢰구간 5.0~9.9), 포시노프릴(10mg) 치료군이 6.7mmHg(95% 신뢰구간 4.4~9.2)이었고 치료 12주째는(용량증량 후) 로사탄 치료군이 9.4mmHg(95% 신뢰구간 6.7~12.1), 포시노프릴 치료군이 10.3mmHg(95% 신뢰구간 7.6~12.9)가 하강하였다. 6주와 12주에 trough좌위 확장기 혈압 강하량은 양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로사탄과 포시노프릴 투여 중 심각한 부작용(임상적 혹은 검사상의 부작용)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큰 불편함 없이 약제를 복용하였다. 마른 기침은 포시노프릴 치료군보다 로사탄 치료군에서 적게 발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

**결론:** 경증 및 중등도의 고혈압 환자에서 하루에 한번 로사탄 경구 복용은 포시노프릴과 비슷한 trough 좌위 확장기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으며 두 치료제의 투여 중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.